



## 현지취재 · VIV ASIA 2005를 돌아보고

# 투자자들 아시아로 눈길 돌린다

‘사료에서 고기까지(Feed To Meet)’를 주제로 개최된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축산박람회인 VIV ASIA 2005가 지난 3월 16~18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7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태국 최고의 전시장으로 떠오른 BITEC에서 처음 개최였다.

우리 일행은 1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 전시회는 물론 태국 양계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해방되고 최근 양계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관계로 예전보다 많은 양계인 및 관련인들이 박람회를 찾았으며, 국내에서는 동물약품업체를 중심으로 대거 출품이 이루어지면서 2년전 대회보다 9개사가 늘어난 23개사가 본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시회 첫날 오전부터 비가 쏟아졌지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행사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차분하고 차질없이 진행됨을 느꼈고, 참관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성공적인 대회임을 느낄 수 있었다.

주최측에 의하면 이번 박람회는 중국, 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 38개국에서 48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참관객만해도 52개국에서 3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번 VIV가 세계 양계인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은 유럽에서 이미 케이지 사육금지 바람이 불면서 유럽시장의 급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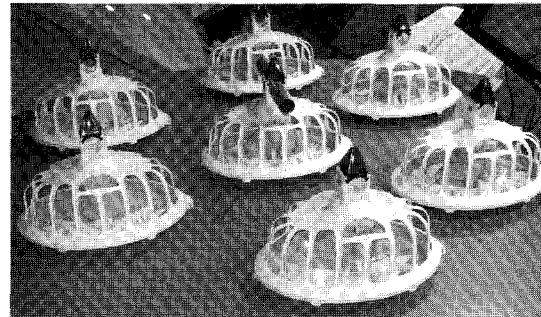
박람회장을 둘러보는 필자(본회 전현수 홍보부장)

한 퇴보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떠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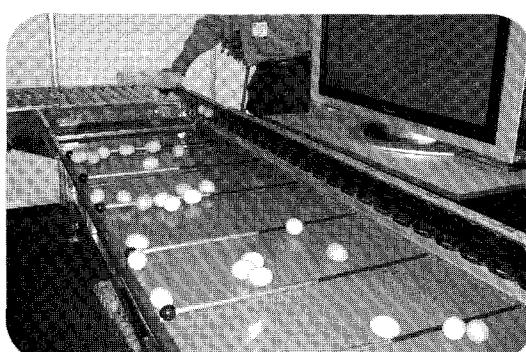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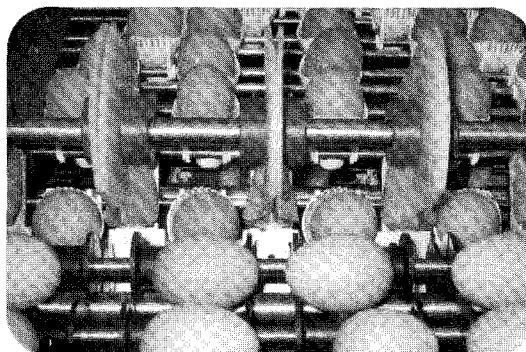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시설업체들의 감소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기술면에서는 더욱 발전되고 특특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코하트무역에서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록셀의 타원형 급이기 제품이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제품은 닭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급이공간을 넓혀주고, 사료의 공급 속도를 원형 급이기 보다 30%이상 빠르게 공급하고, 스트레스 발생이 적고 균일도를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스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선별기들이 선을 보였는데 지능적으로 계란을 기공을 위로 향하게 만들어 난좌에 담는 선별기와 계란이 구르지 않고 접시에 놓여 무게에 따라 분리가 되는 선별기도 선보였다.

태국의 한 음식점에 들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



▲국내에도 보급되고 있는 타원형 급이기가 선보였다.



▲기공을 세워 계란을 난좌에 담는 선별기(상)와 이동중 센서에 의해 새로운 방법으로 선별을 하는 선별기(하)도 선을 보였다.

데 지능적으로 계란을 기공을 위로 향하게 만들어 난좌에 담는 선별기와 계란이 구르지 않고 접시에 놓여 무게에 따라 분리가 되는 선별기도 선보였다.

태국의 한 음식점에 들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

느낄 수 있었다.

오는 8월 한국에서도 국제축산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이 양계 투자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길 바란다.(취재 | 전현수 부장)

던 음식은 역시 닭고기 요리였다. 닭고기 수출 강국으로써 요리 기법도 수준급에 올라있음을 느끼면서 수입으로 고생을 하는 국내 육계 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끌 수 있는 닭고기 요리가 다양하게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봤다.

길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지진해일(쓰나미)’ 등의 피해를 입은 태국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19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태국에는 아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비록 농장 등 관련 업체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공항입구에서 전혀 검역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필자의 마음은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철저한 검역의 필요성을 한번 더